“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숭산 스님 法 되새기다

숭산국제선원 무상사 禪 대회



계룡 무상사가 숭산 스님 열반 20주기를 맞아 10월 12~13일 양일간 경내 일원에서 ‘무상사 선(禪) 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참선하고 있는 외국인 스님들.

계룡시=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모르는 마음을 유지하면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 20년 전 저는 숭산 스님의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평생을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계룡 숭산국제선원 무상사(선원장 탄월 스님)가 10월 12~13일 양일간 경내 일원에서 ‘숭산국제선원 무상사 선(禪)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32개국에 120여 개의 선원을 건립한 해외포교의 선구자 숭산 스님(1927~2004)의 열반 20주기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사부대중이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추모행사는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오직 모를 뿐’과 ‘오직 할 뿐’을 주제로 진행됐다. 선원장 탄월 스님에 따르면 ‘오직 모를 뿐’은 생각 이전의 마음으로 참된 본성을 의미한다고 한다. ‘오직 할 뿐’은 본성에서 나오는 작용으로 보살행을 뜻한다.

한국, 프랑스, 베트남, 스페인 등 전 세계에서 모인 67명의 사부대중은 스님이 남긴 법향(法香)을 다시 한번 느끼고자 무상사 선방에 모였다. 첫날 행사는 △참선 △숭산 스님 출재가 제자 인연담 △조실 대봉 스님·선원장 탄월 스님의 참가자 문답 △숭산 스님 생애 및 법문 영상 및 국제승가 스승 영상 축사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 문답에서 무상사 조실 대봉 스님은 숭산 스님과 처음 만난 순간을 술회했다. 스님은 “숭산 스님은 미국 승가 3일 수련회에서 처음 만났다. 공안 인터뷰(선문답)를 꾸준히 하면서 스님과 매일 일대일로 수행했다”며 “숭산 스님은 참본성인 ‘모르는 마음’을 유지한다면 나와 너의 분별이 없어져 일체가 하나가 된다고 설했다. 나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평생을 기다렸다고 느꼈다. 이후 출가해 수행의 길을 걷게 됐다”고 밝혔다.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인 대중들.



질문에 답하는 무상사 조실 대봉 스님.



숭산 스님 출재가 제자들이 인연담을 전하고 있다.

‘숭산 스님의 해외포교 전략’을 묻는 질문에서 대봉 스님은 “숭산 스님은 ‘오직 모를 뿐’이라는 불교의 ‘핵심’은 유지하되 그 나라에 맞는 정서와 문화를 고려해 전법했다”며 “만약 숭산 스님이 일본불교처럼 고국의 전통만을 강요했으면 실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숭산 스님 출재가 제자들의 인연담도 진행됐다. 연사로는 체코 출신 휴정 스님, 리투아니아 출신 원보 스님,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 휴 슈크만 유타대 송도 아시아 캠퍼스 부교수가 나섰다.

준한 스님은 “삶이 지옥 같았을 때, 숭산 스님의 저서 〈선의 나침반〉을 읽고 한 줄기 빛이라 생각했다. 이후 화계사에서 안거를 나고 삶의 문제를 해결했다”며 “‘지금 이 순간, 오직 할 뿐’으로 스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을 모두 잘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매 학기 학생들과 무상사를 찾는 휴 슈크만 교수는 숭산 스님이 구축한 수행 공동체의 ‘편안함’을 상찬했다. 슈크만 교수는 “숭산 스님이 승가에 ‘편안함’을 심어놓은 덕분에 다양한 문화·국적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보 스님은 “리투아니아에서 숭산 스님의 책을 보자마자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느꼈다”며 “팔만 사천의 부처님 법문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신 선지식”이라고 말했다.

10월 12~13일 경내 일원서
숭산 스님 열반 20주기 맞아

참선, 법문, 생전 영상 시청
스님 생전 사진 담긴 사진전
다양한 체험 부스 ‘야단법석’

휴정 스님은 본국 체코에서 무술을 수련하다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만났다. 스님은 “숭산 스님의 단순하고 불교의 핵심을 찌르는 글귀가 수행과 삶의 방향을 정하는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앞서 2시간여 동안 참선 정진으로 행사의 막이 열렸다. 숭산 스님의 생전 가르침에 따라 사부대중이 모두 평등하게 좌복에 앉아 참된 자아인 ‘모르는 마음’를 얻기 위해 정진했다. 가끔 새 지저귀는 소리가 들릴 뿐 선방에는 고요함만이 가득했다.

참선 정진은 대중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성소은(55) 씨는 20여 년 전 숭산 스님 제자 현각 스님의 저서를 보고 참선의 길에 접어들었다. 성 씨는 현재 파주 타이포그래픽 디자인학교에 설치된 ‘명상과 수행’ 과목을 지도하고 있으며, 오늘 학생들과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숭산 스님 열반 20주기를 맞아 학생들과 함께 참선하니, 스님의 가르침이 잘 유지·계승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기쁘다”며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본성’을 함께 보는 수행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 씨와 동행한 앨리스(프랑스, 21) 씨는 “2시간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며 “마음이 평안하고 평화로워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숭산 스님의 생애 및 생전 법문 영상과 미국, 폴란드, 홍콩 등 국제 승가 스승들의 축사 영상 시청으로 첫날 행사는 막을 내렸다. 최재현(52, 스페인) 씨는 “오늘 행사에 참여해 수행도 하고 숭산 스님의 영상도 보게 되어 기쁘다”며 “간단하지만, 힘 있는 가르침을 주시던 숭산 스님을 상기하게 되니 눈물도 나고 감동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튿날은 숭산 스님 열반 20주기 추모 법회가 경내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법회에는 무상사 조실 대봉 스님, 선원장 탄월 스님, 화계사 회주 성광 스님, 화계사 주지 우봉 스님 등 스님들과 오진 법사, 일화 법사를 비롯한 숭산 스님 출재가 제자 및 신도들이 동참했다.

한편, 스님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전 커팅식과 다양한 명상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야단법석’도 함께 진행됐다.

“제2의 숭산 키워낼 수행도량 꿈꿉니다”

숭산국제선원 무상사 선원장 탄월 스님

32개국 120여 선원을 세우고 1만여 명의 외국인 출재가 제자를 키워낸 해외포교의 선구자 숭산 스님(1927~2004). 열반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통해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 숭산 스님이 2000년 창건한 계룡 숭산국제선원 무상사 선원장 탄월 스님도 바로 그 제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숭산(崇山)이라는 거대한 산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며, 그의 가르침을 어떻게 알릴 계획일까.

탄월 스님은 군대 전역 후 영어 특강을 들었다가 현각 스님을 통해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됐다. 탄월 스님은 “전에도 불교 서적을 접했지만 숭산 스님의 가르침이 간단하고 명료해 매료됐다”며 “이에 바로 출가를 결심했고, 3년간 스님께 직접 공안독참(선문답) 지도를 받기도 했다. 숭산 스님은 제 수행과 인생의 절대적인 초석이며 영혼의 눈을 뜨게 해준 큰스승”이라고 밝혔다. 이어 “숭산 스님은 자신이 설한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실천했던 분”이라며 “거기에 자비와 천진한 유머까지 겸비하신 선지식이었다”고 술회했다.

숭산 스님이 열반한 지 20년이 지난 오늘, 탄월 스님은 앞으로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전할 생각일까. 스님은 먼저 숭산 스님이 남긴 국내외 인적 네크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스님은 “화계사, 홍대선원, 관음선회(Kwam Um School of Zen) 등 해외와 국내에 숭산 스님께서 남기신 유산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협력·교류하면서 숭산 스님의 가르침이 한국은 물론 세계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탄월 스님은 무상사가 “제2의 숭산 스님이 배출될 국제수행도량”이 되길 기대하고 있었다. ‘국제관음선원 건립’이 그 초석이다. 탄월 스님은 “무상사 뒤편에 지어질 국제관음선원은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 외국인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오롯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도량이 될 것”이라며 “숭산 스님이 남겨주신 유산들을 계승·발전시켜 참나를 깨닫고 일체중생을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계룡시=김민재 기자



무상사 선원장 탄월 스님. 사진제공=무상사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불교 정중종

일죽 망이산성 연 등 사

주지 도 심

- 사회부장
- 안성경찰서 경승회 감사
- 안성불교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
- 前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16기~17기
- 동국대 행정대학원 총동문회 여성수석부회장
-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CEO총동문회 회장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48-37(화봉리 69-1)
TEL (031)674-5765 | FAX (031)674-5769 | Mobile. 010-3714-9351